

# "벼멸구를 잡아라"

1975년 9월 누런 황금들판을 바라 보면서 50년내의 대풍이라며 기쁨에 차있던 농촌이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것을 지금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때 그 엄청난 시련을 안겨준 것이 바로 「벼멸구」란 해충이었다.

이 당시 상황을 간추려 보면 8월 중순부터 번지기 시작한 벼멸구가 급속하게 번져 전남북지방과 경남북을 휩쓸고 내륙지방까지 확산돼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그런데 올해도 뒤늦게 벼멸구와 흰등멸구가 계속 극성을 부려 농민은 물론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8.25 현재 농촌진흥청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벼멸구의 경우 충남이 남남부지방의 방제소홀담에는 지난 8.10경보다 8월하순의 멸구수가 무려 3~5배로 급격히 늘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한계까지 와 있고 경북 북부지방과 충북, 경기이북지방에는 성충이나 약충의 수는 적으나 일찍 속에 알을 많이 낳아 놓았기 때문에 9월상순경 이들이 알에서 깨어나올

경우 급격히 약충의 수가 늘어나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남부지방은 9월상순경에, 중북부지방은 9월중순경부터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방제할 논도 자세히 살펴서 멸구가 보이면 멸구약을 줄기 밑까지 묻도록 충분한 양을 한번 더 뿌려 주어야 하며 남부지방에서 침투성입제농약을 뿌릴 농가는 논물을 3~5cm 정도 대고 10a당 4kg을 뿌려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흰등멸구의 경우도 습성으로 보아 지금까지는 한장소에만 몰려서 생활하여 왔으나 어른 벌레가 되면서 부터 멀리 헤쳐 퍼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모내기를 늦게한 논 질소비료를 늦게 많이 주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논등은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벼멸구는 예년보다 일찍 날라온데다 날라온 회수 및 양이 많았고 7월 하순~8월중순의 고온에 강우량이 적어 증식율이 높았으며 초

# 방제 소홀하면 피해 막심 9월 하순까지 안심 못해

기 발생원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부지방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벼멸구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지 못하며 매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에 중국대륙으로부터 장마와 더불어 날라와 2~3세대를 지내게 되고 남부지방 및 해안 지방에 먼저 발생하게 되고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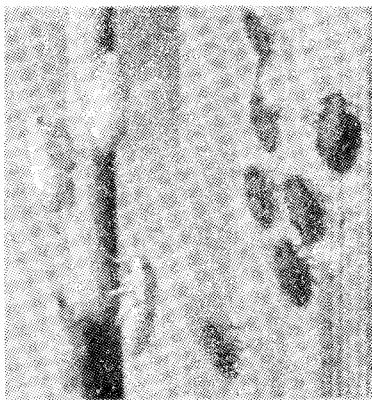
주로 벼포기 아랫 부분에서 어린 벌레 또는 어른벌레가 직접 벼대의 즙액을 빨아먹으므로 포장을 헤쳐보지 않고는 찾기가 어렵다.

8월부터 밀도가 높아지면 이삭패기전후에 피해가 아랫잎부터 황색으로 되다가 집중적으로 가해한 부분이 약해져서 벼포기 중간이 부러지며 논 군데군데 집중적으로 방석형의 무더기 피해 증상이 나타나는 무서운 해충이다.

이제 대풍을 눈앞에 두고 철저한 예찰과 방제로 마지막 병충해방제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㉔



◇ 벼멸구 어른벌레의 모양



◇ 흰등멸구 애벌레의 모양